

#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태세 강화

### 무주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 돼지열병·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무주군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과 같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으로 소독시설 지도·점검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백신 공급 및 접종 등 관리가 필요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관내 가금농장은 6곳(닭 5호/12만여 마리, 오리 1호/4천여 마리)으로 군은 AI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외부 △집란실 등 농장시설 △농장 차량, 열풍기 등 장비·기구·물품에 대한 소독, 그리고 사람 및 차량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ASF가 야생멧돼지 폐사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양돈농장에서 발생하

고 있어 3월말까지 양돈농장 6곳(13,680두)의 농장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시설 운영능력 점검 등 차단 방역 관리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월말까지 지역내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도 나선다. 대상은 무주군에서 사용하는 소(소규모(50두미만) 182호/3,349두, 전업(50두이상) 57호/5,768두), 염소(소규모(300두미만) 27호/333두, 전업(300두이상) 1호/900두)로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항체 양성을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항체 양성률이 80%가 될 때까지 추가접종 및 1개월 내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업농가(소의 경우 50두 이상, 염소의 경우 300두 이상 사육)에서는 무진

장축협을 통해 직접 백신을 구입한 후 자가 접종해야하며, 소규모 영세 농가는 무주군 예방 접종반(2개 반)이 농장주 임의하에 접종을 하게 된다. 접종 내역 관리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백신접종 누락 개체, 일제접종 유예 개체 등의 백신 접종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기가 이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 군도 방역태세를 강화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AI, ASF, 구제역이 무주에 창궐할 수 없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면서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3일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2024~2025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

### 진안군, 2024~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방안 논의·적극 대응

진안군은 23일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2024~2025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실시했고, 전 부서가 정부 및 전북도 재정투자 방향과 정책동향 파악에 적극 나서는 등 주요정책 사업을 비롯한 군민의 행정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군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보훈회관 건립 △갈갈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44개 사업(총사업비 2,056억원)의 추진계획과

논리 개발,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 등을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중앙부처와 전북도, 국회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 등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라북도 담당부서와 중앙부처 방문,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발굴, 정지권 공조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 '탄력'

### 무주군, 지난해 이어 지원 사업 선정 쾌거

무주군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2023년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잇따른 쾌거다. 이로써 군은 2022년 6천만 원의 초기창업지원금에 비해 138% 향상된 총 8천3백만 원의 초기창업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 무주군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취업교육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올해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중 창업 교육생 15명을 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아이템의 적정성 등을 고려 후, 창업자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 진행 전 교육(노무관리, 세금, 회계, 인사, 마케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창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창업 기본 및 특화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최현희 팀장은 "사업아이템 컨설팅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창업 후 창업자들 대상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통한 사업장 분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예정돼 있어 창업 성공에 노후가 축적될 것이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유사사업 중복 참여 등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 분야는 전 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업이나 주점업, 금융업, 종교단체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청(063-320-2388) 또는 수행기관인 기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3)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군정 발전 기여자 명예군민증 수여

장수군은 광장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문권철 우노캠퍼오케스트라 대표, 양동혁 전 장수경찰서장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23일 군수실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광장군 교수는 전북 동부지역 특히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을 지역 대표문화유산으로 인식시키는 데 일등공신으로 장수 지역의 문화유산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권철 대표는 장수군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수준 높은 예술단을 육성해 매년 정기공연 및 한우랑사과랑축제에 참여하는 등 아동예술교육 저변 확대와 장수군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명예군민으로 선정됐다. 또한 양동혁 전 서장은 장수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행복장수 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협조로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선발됐지만 어렵게도 다른 일정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월 광장군 교수는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문권철 대표와 양동혁 전 서장도 기부에 동참해 장수군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몸소 실천했다. 최훈식 군수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에 세분의 힘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예군민으로서 앞으로도 장수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로컬JOB센터,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 로컬JOB센터(센터장 최민강)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가에서 농업근로자를 채용해 농작업을 진행하면 구인한 농가에 농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근로자 1인당 종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9,000원을 지원하며, 농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수군 로컬JOB센터(063-352-7898)에 '도농 상생형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연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되도록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 일지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장수군 농가와 연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 구직자가 농작업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로컬JOB센터에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최민강 센터장은 "도시에 거주하는 비경제활동 인력이 구인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인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안전한 벼농사 리플릿 배부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안전한 벼농사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카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종자에서 오는 병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안내 등 벼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벼 육묘상자처리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자 이중소독(온탕+약제)방법, 종자 과중 표준권장량(130g), 비료 표준 시비량 등 기본 준수사항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방법과 쿠폰 사용 등이다. 리플릿은 군민 누구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설천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집수리 교육 성료

무주군 설천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집수리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집수리교육'은 주민 스스로 주택 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소한 정비에 대한 자각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설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심정민 센터장)에서 진행된 도배교육은 집수리 기초교육에 13명의 교육생이 수강했으며, 이 중 9명이 최종 수료했다.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설천면



소재지의 노인회관 등을 다니며 지원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의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통학택시·버스지원호응

진안군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관내 중고등학생 통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통학 택시(버스) 지원사업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각 학교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으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개학 일정에 맞춰 관내 중고등학교 총 12개 학교, 265명 학생을 위해 통학택시(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군은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 시행으로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대폭 단축됐으며 도시권에 비해 버스 막차 시간이 빨라 포기해야 했던 아간자율학습에도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